

어원 찾기

하 창 식(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교수)

이론과 실험 결과를 절반씩 이용하여 만든 반경험적인 식을 과학에서는 semi-empirical 식이라고 부른다. 이럴 때 반(半)으로 붙여지는 접두어는 semi이다. 원을 영어로 circle이라고 하며 반원을 semicircle이라고 한다. 운동경기의 결승전은 final이며 준결승전은 semifinal이다. 마찬가지로, 한해의 절반인 여름, 즉 summer는 고대 산스크리트어에서 1년의 절반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sama에서 유래되었고 semi와 같은 어원을 갖는다.

식물화석의 일종인 호박 보석은 영어로는 amber라고 하지만 호박의 그리스어는 elektron이다. 먼 옛날 우리의 선조들이 호박을 문지르다 오늘날의 전기와 같은 성질을 발견하였고 전기(electricity)는 그래서 호박으로부터 유래된 이름이다. 이런 점에서, 프랭클린이 피뢰침을 발명하고 에디슨이 필라멘트 전구를 발명하고 패러데이가 과학의 역사상에 빛날 전기에 관한 제 법칙들을 체계화하기 훨씬 이전에 호박 보석으로부터 전기를 발견한 인류의 지혜가 그저 놀랍지 않은가?

공학자나 기술자를 의미하는 engineer란 engine을 다루는 사람이란 뜻인데 엔진의 원래 어원은 라틴어 ingenium(천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고대 프랑스 시대부터 도구(engine)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engineer란 사실은 engine + er 즉, 엔진(engine)을 다루는 사람(er)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 라틴어의 in(中) + genius(천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다. 엔지니어의 독일어는 ingenieur이니 적어도 16세기 이후부터는 기술자가 최상의 천재는 아니라도 중간 정도의 천재는 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듯 하다.

그렇지만 엔지니어가 확실히 천재가 될지 둔재보다 못한 어중간한 천재가 될지는 엔지니어 자신의 몫일 테니 특히 요즈음과 같은 기술 개발의 경쟁 시대엔 엔지니어 자신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겠다. 확실한 천재가 되기 위해.

한편, 동서남북의 어원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해가 뜨고 지고 높이 오르며 깊이 가라앉은 데서 유래된다. 해가 떠서 아침이 밝아온다는 뜻의 라틴어 aurora 혹은 그리이스어 eos로부터 east가 유래되고 해가 가라앉은 저녁이란 의미의 라틴어 vesper 혹은 그리이스어 hesperos로부터 west가 유래되었다. 그런가 하면 해(sun)가 가장 높이 떠 오르는 곳이 남쪽이라 하여 south가 유래되고 해가 가장 깊이 가라앉은 그리이스의 nerteros(아주 아래 혹은, 보다 깊은 의미임)로부터 북(north)의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나라 이름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이름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남반부의 매력적인 땅(라틴어로 Terra Australis) 호주는, 라틴어의 「남쪽의」를 의미하는 형용사 australis에서 유래하여, 그 발견자들이 Australis라고 불렀다. 지금은 신유고 연방으로 나라가 분열되었지만, 예전의 유고슬라비아(Yugoslavia)란 남쪽의 slave국이란 뜻으로 러시아어로 남쪽은 Yugo라고 한다.

북쪽에 위치한 지명 중에는 Norway의 nor, Siberia의 sibe 등의 어원이 북(north)과 관련이 있다. 영어로 north라고 하지만 스웨덴어로는 Norr, 독일어에서는 nord 등으로 불리우고 러시아어로는 sibe(СЕБЕP)라고 하는 게 모두 같은 어원을 지니고 있다는 게 언어학자들의 통설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요네즈(mayonnaise)는 지중해에 있는 스페인령 발레아르군도(Balearic Islands)의 작은 한 섬에 Mahon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호수에서 유래되었다. 이 Mahon의 형용사인 mahonnaise로부터 mayonnaise가 유래되었다. 1756년 프랑스의 한 장군이 이 Mahon을 탈취한 기념으로 작명하였다는 설이

전해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어떤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였을 때 그 발견된 사실의 뿌리에서부터 이름을 짓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이름 혹은 자기 조국의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한다. 이를테면 헬륨이란 불활성 기체의 이름은 이 원소가 1868년에 인도에서 일식이 관측될 때 태양(그리스어로 helios)의 빛을 분석하다 처음으로 발견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 Scandium이란 원소는 발견자인 Nilson이 자기 조국인 Scandinavia의 이름을 붙여 1879년 Scandium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방사성 원소의 일종인 Polonium 역시 발견자인 퀴리부인이 1898년 자기 조국의 이름 Poland로부터 이름을 붙였다.

당뇨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insulin은 1921년 Banting과 Best에 의해 발견된 호르몬인데 insulin의 어원은 라틴어의 insula에서 유추하여 명명한 것으로 인슐린이 췌장에 존재하는 랑게르한스섬(Island of Langerhans)이라고 하는 내분비선 조직에서 분비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섬은 영어로는 island이지만 독일어로는 Insel인 것을 보면 insulin의 어원에 대해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팩시밀은 영어로 facsimile인데 이 말은 fac과 simile의 합성어로 즉 fac는 라틴어 facere의 명령형 즉 만들라는 뜻이고 simile은 같은 모양으로라는 뜻이니 facsimile은 같은 모양으로 복사하여 전송한다는 뜻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과학 기술이 점차로 발달하여 인간의 두뇌와 유사한 두뇌를 가진 기계인간이 등장할 날도 머지 않을 것 같다. 기계인간 즉 사이보그(cyborg)는 cybernetics와 생물체란 의미의 organism의 합성어인데 오늘날 총체적 과학의 총아로 각광 받고 있는 인간두뇌학 즉 cybernetics는 오래지 않아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환상들을 현실로 바꾸어 놓게 될 것이다. Cybernetics란 MIT의 N.Wiener 교수가 제창한 학문으로 그리이스어의 Kybernetes, 즉 「배의 키를 잡는 사람」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새로운 학문이 앞으로의 학문의 방향을 잡는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여하튼 현대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첨단으로 치달을 지라도 그 새로운 발견이나 발명들이 먼 옛날의 고대 신화나 그리스어 혹은 라틴어 혹은 산스크리트어에서 빌려온 이름으로 명명되는 예들을 보노라면 역시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진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시(時)는 공(空)이고 공은 시이며 만고에 불변인 진리는 오직 하나 하느님의 오묘한 뜻에 따라 우주가 움직이고 역사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장 종교적이라고 하던가?

끝으로, 어원을 생각하면 절대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 남과 여를 나타내는 man과 woman의 어원이다. Man은 고대 산스크리트어의 동사 man(생각한다)으로부터 유래되고 woman은 고대 영어에 wifman 즉 wife+man의 합성어에서 비롯된 단어란 설이 유력한 걸 보면 예부터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파스칼의 명제가 고대로부터 진리임엔 틀림이 없고 남자가 생각을 올바르게 하려면 언제나 여자의 충고가 필요한 게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든 하느님의 섭리인 듯 하다.

그래서 한 남자(man)의 아내(wife)는 여자(wifman→woman)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던가? 남자의 올바른 판단엔 언제나 여자의 충고가 필요하다는 것은 돈의 영어인 money 어원을 살펴봐도 충분히 납득이 될 것이다. 원래 money란 라틴어 moneta에서 유래된 말인데 moneta의 원 뜻은 「생각해 내는 여성, 충고자」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질투가 심하기로 유명한 그리스 신화의 쥬피터의 아내 juno의 별명으로 juno Moneta(충고자 juno)가 사용되었는데 이 여신의 신전에서 화폐를 만들었기 때문에 menota가 「충고하는 여성」이란 의미에서 화폐란 의미의 money로 변형된 것이라는 게 정설이고 보면 남자들이 돈을 쓸 때는 더욱 여성의 충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너무 지나친 페미니스트의 궤변이 될까?